

## 집중분석! 서울에어쇼 '96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서울에어쇼'96 행사가 오는 10월 21일(月)부터 27일(日)까지 7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소재)에서 개최된다.

공군이 주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에어쇼'96은 그동안 개최되었던 항공전과는 그 양상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국제에어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어쇼'96의 준비를 맡고 있는 공동운영본부는 이제 두달도 채 남지않은 행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오늘도 분주한 모습이다. 공동운영본부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유치실적과 행사준비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땀흘려 준비한 행사를 많은 대중이 관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업체유치면에서 성공적

지난 3월, 국민적 관심제고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서울에어쇼'96의 명예대회장에 이수성 국무총리가 추대된 이후 서울에어쇼'96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업체 유치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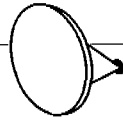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타에어쇼 참가를 통한 사전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운영본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볼 때 타 산업에 비해 뒤쳐져 있고, 행사 홍보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처음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과 홍보활동으로 지난 5월부터 외국업체로부터의 문의전화의 쇄도했으며 이와함께 참여의향을 보내오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공동운영본부를 비롯한 정부차

#### 행사진행과정

- '84. 5 : 국제 학술실포지엄 행사 최초 실시
- '94. 10 : 국제 학술실포지엄 및 산업전시회 6회 실시 (짝수년)
- '94. 11 : 행사규모 확대방침 수립(에어쇼 포함)
- '95. 7 : 행사 기본계획 장관보고 및 국제행사 승인
- '95. 8 : 합의서 체결(공군-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95. 9 : 행사 안내서한 발송 (37개국 공군참모총장 및 협회장)
- '95. 11 : 행사 대형 기획사 선정
- '95. 11 : 행사 보고회 개최 및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 '96. 1 : 공동운영본부 개설 운영(서울 및 공본 사무소)
- '96. 1 : 정부 관련부서(외무부 외 13개 부서)협조 추진
- '96. 1 : 공군 추진위원회 구성
- '96. 2 : 서울에어쇼 '96 시행계획서 및 공군지원계획서 작성 배포
- '96. 3 : 행사 추진현황 및 현안보고(국방부 장관)
- '96. 3 : 국무회의 상정(범국가적 행사로 추진)
- '96. 3 : 공동대회장 명의 서한 발송(37개국 대사관)
- '96. 3 : 공식 지정업체 선정(조용은행 외 12개 업체)
- '96. 4 : 서울에어쇼 추진현황 및 현안보고(국방부 장관)
- '96. 4 : 국방부·통상산업부 공동 추진위원회 구성



원의 활동이 서서히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서울에어쇼는 단순히 업체유치면에서 본다면 운영본부측은 첫 행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남은일은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과 함께 관람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다.

회가 있으며 그 밑에 행사 공동운영본부가 있어 행사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조직의 구성면에서 보아도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0월25일부터 일반인 관람가능

서울에어쇼'96은 행사별로 각기 다른 일정을 갖는다

본 행사는 '96년 10월 21일(月)부터 7일간 열리게 되는데 이중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21일부터 24일까지)은 Business Day로 참가한 업체들이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우주에 관련된 업체나 기관직원을 비롯하여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다. 단

24일은 Business Day관람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관련업체종사자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관람이 가능하다. 폐막식 전까지 나머지 3일간은 Public Day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데 초·중·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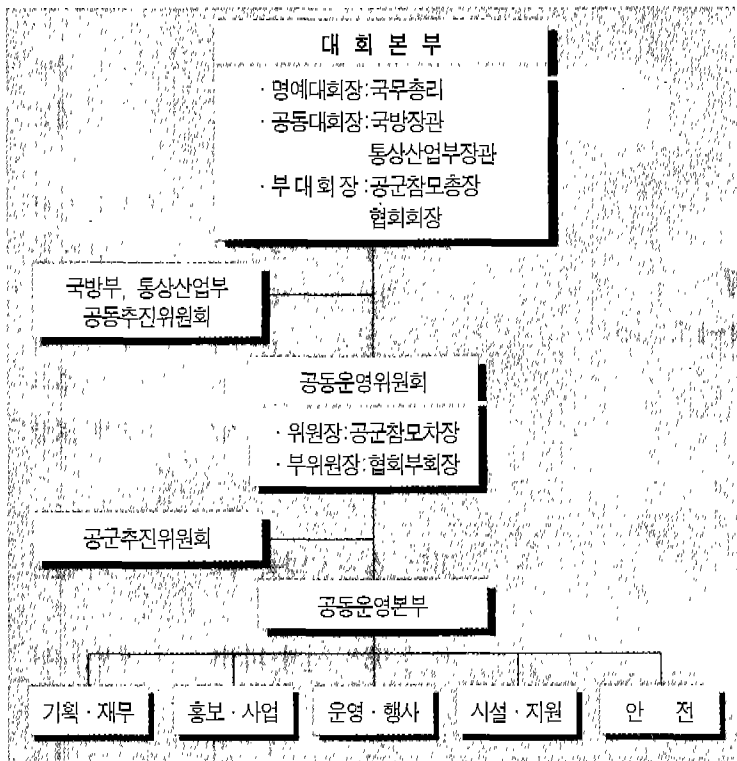
한편, 서울에어쇼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항공우주테크노마트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항공우주심포지엄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각 개최된다.

### 명예대회장에 국무총리

서울에어쇼의 조직을 살펴보면 대회본부 명예대회장에 국무총리, 공동대회장에 국방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 부대회장에 공군참모총장과 항공우주 협회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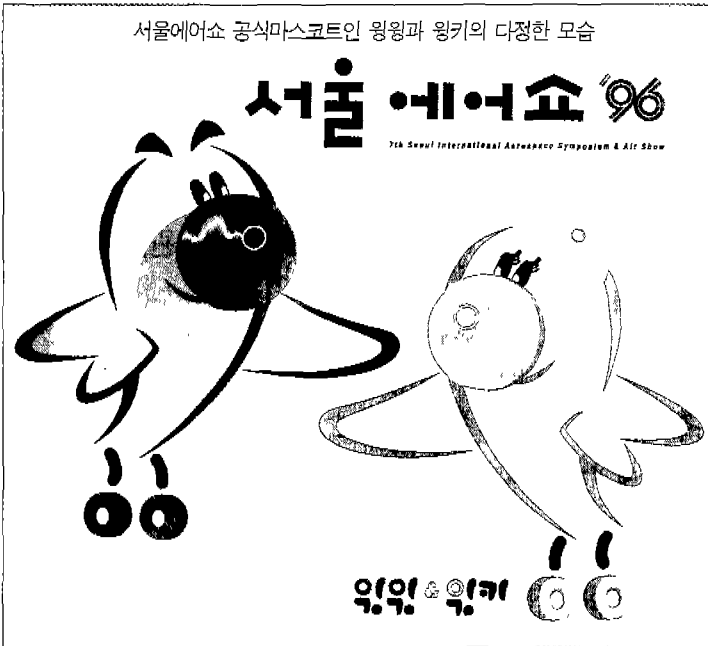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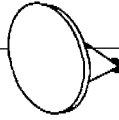
그 하부조직으로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 항공우주 협회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위원

서울에어쇼 '96 조직도



### '윙윙'과 '스카이퍼'

서울에어쇼'96의 공식 마스코트와 캐릭터는 '윙윙'과 '스카이



보라매를 상징화한 '스카이퍼'의 모습  
서울에어쇼 공식 캐릭터이다



퍼'.

비행기가 바람을 가르며 나는 소리를 문자로 나타낸 '윈윙'은 비행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발음상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지녔다. 또한 비행기의 날개를 뜻하는 Wing을 연상시키는 발음이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가졌다. '윈윙'의 파트너 '윙키'는 'Wing Korea'의 줄임말로 한국 항공우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한편, 서울에어쇼 도우미 이미지로 활용할 캐릭터는 '스카이퍼'로 Sky와 Keeper를 합성한 이름이며 그의 미대로 미래 하늘을 지키는 믿음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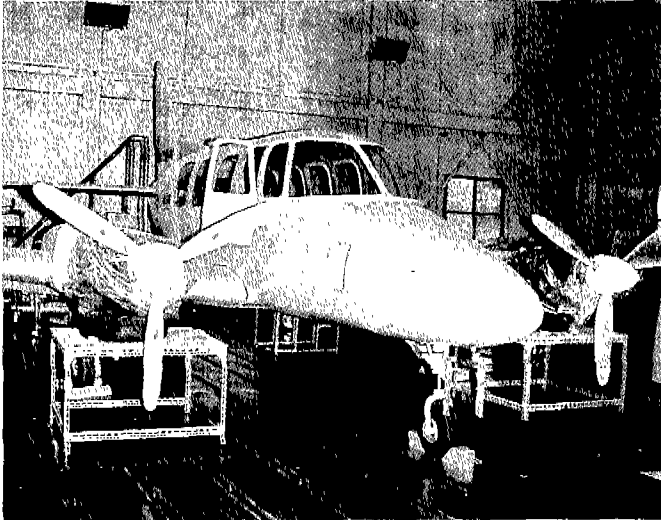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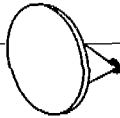
러운 보라매를 상징화했다.

감쪽하고 귀여운 모습의 '윈윙'과 '윙키'는 미래 하늘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국민들이 서울에어쇼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는데 한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에어쇼의 처음 준비단계부터 사용해왔던 로고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각면은 종이 비행기, 비행기의 동체, 그리고 양날개를 상징하는 새의 모습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살려 황·청·적색을 사용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비전과 진취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고있다.

## 테크노마트, 심포지엄등 부대행사도 다채로와

서울에어쇼'96은 업체 비즈니스와 홍보를 위한 살내전시와 항공기전시를 위한 실외전시, 그리고 하늘을 전시장으로 이용하는 시범비행 및 관람객을



지난 광복50주년 기념으로 항공우주연구소와 삼성항공이 공동으로 개발한 쌍발복합재항공기의 모습 서울에어쇼 기간중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위한 곡예비행으로 크게 나뉘며 실내전시는 본전시장과 항공우주관련 기술교류 측면에서 개최되는 테크노마트, 2000년대 항공우주시대의 새로운 인식과 조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항공우주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이와같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에어쇼기간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며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로서는 전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정책, 기술교류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아직 항공우주산업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 20여개국 200개업체 참가... 군수산업전도 통합

20여개국 200개업체가 참가하는 본 전시장에서

는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서울에어쇼 개최시기와 근접해 영국, 중국의 에어쇼가 열려 업체유치에 난관이 예상되었던 초기우려와는 달리 8월 12일 현재 국내 36개업체, 해외 123개업체 등 총 159개업체의 참가가 확정되었으며 1,038개 부스가 이미 계약완료된 상태이다. 이 규모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에어쇼를 개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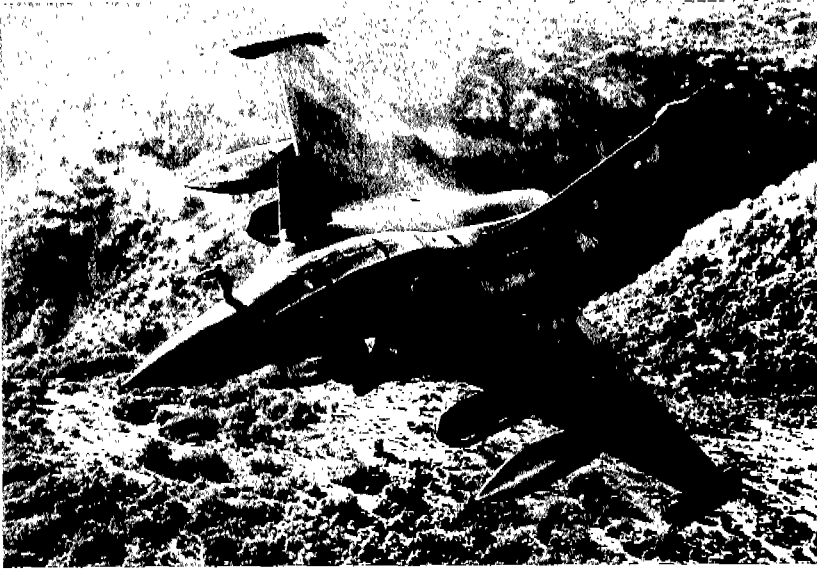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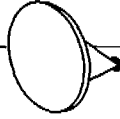
항공우주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747기종을 생산하는 보잉, F-16등 최신에 전투기를 비롯하여 RLV(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의 우주왕복선을 개발한 록히드마틴, MD-95의 맥도널더글라스등 총 42개업체들이 참가하여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인 항공우주산업의 위용을 한껏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 최고의 항공우주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라팔(Rafale)전투기를 생산하는 다소(Dassault)와 아에로스페이스알(Aerospatiale) 등이 참여하며 유럽 컨소시엄인 에어버스사도 항공기를 선보인다.

한편,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한국의 약 35여 항공우주업체들은 이번 서울에어쇼를 계기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전세계에 알리고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4개업체는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업체홍보에 나서, 에어쇼 기간 중 가장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유사목적 국제행사 통합원칙에 따라 서울에어쇼 기간중 통합개



에어쇼기간중 선보일 라팔의 모습



에어쇼기간중 선보일 Su-35의 모습

최되는 군수산업전시회는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산, 두원중공업등 국내 20여개의 업체와 해외의 50여개의 방산업체가 참가신청중에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사격지휘차, 유도탄, 함정용 전자전

최신여객기인 B777, 프랑스의 라팔전투기, 에어버스의 A340,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인 Su-30, Su-35기종, 그리고 한국의 KF-16, 창공91, KTX-I과 지난 광복50주년 기념으로 개발한 쌍발복합재 항공기 등이 전시된다.

장비 등 각종 육·해상 방산제품이 전시된다.

세계 항공우주업체가 총집결한 이번 서울에어쇼의 본 전시장은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곳을 지나는 관람객은 항공우주산업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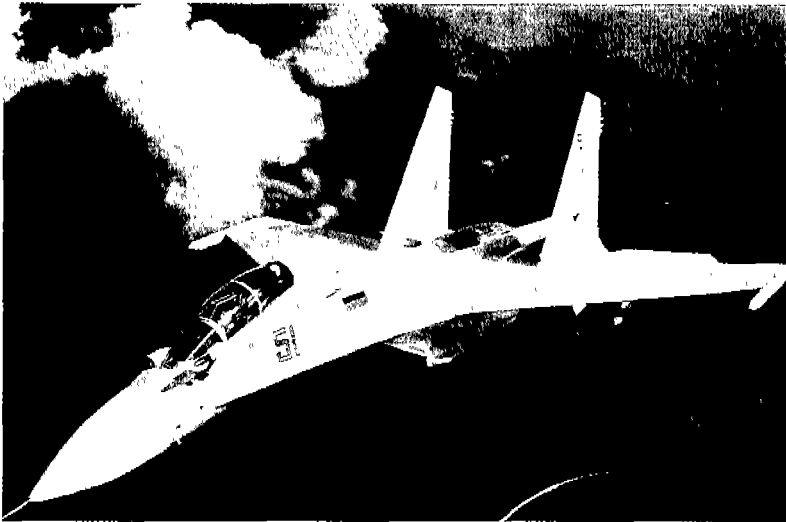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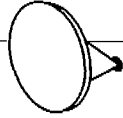
### F-117, Su-35등

실물전시...

시범비행도 함께해

실내에서의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즐겼다면 이제는 탁 트인 실외전시장의 세계 여러 항공기를 구경할 수 있다.

이번 서울에어쇼기간중 전시되는 항공기는 미국의 최신예 F-14, F-15 전투기와 AH-64등 공격용 전투헬기, 그리고 걸프전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던 스텔스 폭격기인 F-117등을 비롯하여 보잉의



에어쇼기간중 시범비행할 Su-30K의 모습

한편, 전시되는 기종중 라팔, A340, Su-30/35 기종 등의 시범비행도 할 예정으로 지상전시와는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공군 블랙이글팀 참가... 에어쇼의 꽃 곡예비행

에어쇼의 꽃이라 불리우는 곡예비행은 어느 전시회나 박람회보다 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울에어쇼에도 매일 3시간 동안 푸른 가을 하늘을 가르는 곡예비행이 계속되는데 미국의 시에라에이스(Sierra Aces)팀과 러시아, 호주 그리고 한국의 곡예비행단인 블랙이글팀이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블랙이글팀은 우리 공군의 대국민 이미지제고 및 역량과시를 위해 지난해 창설된 비행단으로 5기를 기본편제로 하여 멋진 묘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의 시에라에이스 팀과 호주의 스카이블레이

저(Chris Sperou's Sky Blazer)팀에는 베테랑급 곡예비행 조종사들이 Pitts S-2B, Pitts Special기종으로 비행,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편, 러시아의 곡예비행팀은 프로펠러기인 Su-29M과 Su-31M을 선보여 러시아 항공기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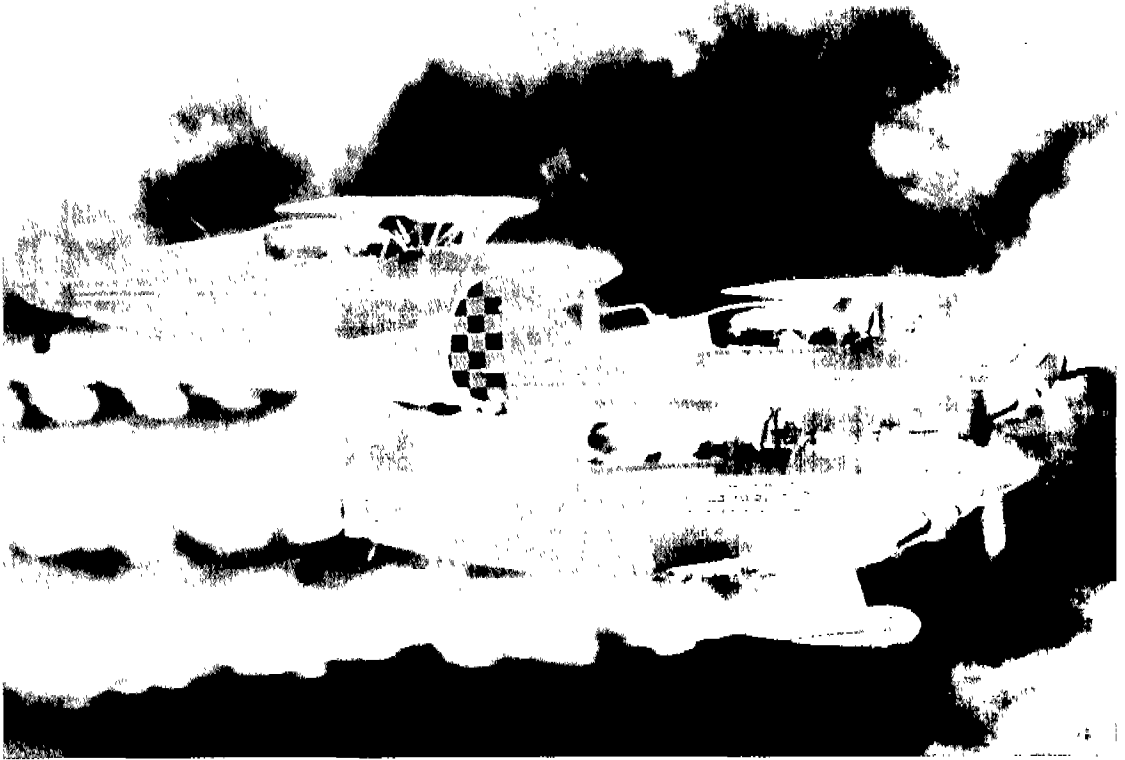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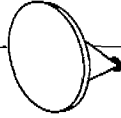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몇 안되는 곡예비행팀과는

차원이 다른 이번 팀들의 곡예비행은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 최신 항공우주기술 소개... 항공우주테크노마트

'21세기 항공우주기술과의 가슴벅찬 만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테크노마트는 에어쇼사상 세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기대도 크다.

세계 항공우주 기술동향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기술의 효율적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항공우주 관련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파트너 물색, 구체적인 협력 및 비즈니스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세계 저명 석학 및 전문가 14명이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산업적 이용, 항공기 및 인공위성부품·소재산업의 기술교류, 항공우주산업과 CALS등의 주



서울에어쇼 '96에 참가해 가을하늘을 멋지게 수놓을 미국의 곡예비행팀인 시에라에이스(sierra aces aerobatic)의 모습

제하에 세미나를 열고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전망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이용과 미래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 상담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비비 장관 기조연설,  
항공우주심포지엄**

항공우주시대의 새로운 인식과 조

망'이라는 주제하에 호텔 롯데월드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심포지엄에서는 2000년대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항공력의 역할과 한반도 주변의 항공우주력, 한국의 항공우주력 증강을 위한 정책과 방향등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항공우주산업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하비비(B. J. Habibie) 과기처 장관이 참석하여 '항공우주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하는 등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및 공군관계자 28명의 연사가 참가하여 토론을 펼치게 된다.

공군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과 공군력의 역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